

“중평제 낙찰률 인위 조정 부실시공 초래”

〈종합평가낙찰제〉

정부가 낙찰률 조정을 위해 종합평가낙찰제(중평제) 기준 개정을 강행하면서 건설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 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으로 했다.

2015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는 저

정부 낙찰률 내려 예산절감 추진 1,400개 건설사 재검토 탄원 제출 업계 “공사 수행 힘들어” 반발

가 투찰로 인한 부실·적자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 지자체 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지난 1년여간 시행한 결과 중평제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면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위

적인 낙찰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중평제 기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400여 개 건설사가 중평제의 인위적 낙찰률 조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전형적인 불통 행정 사례”라며 “건설사들이 공사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낙찰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강원상품권으로 소비심리 불 지핀다

【홍천】‘오늘은 강원도의 돈, 강원상품권 쓰는 날! 돈 들고 모이자!’

강원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장보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이 오는 24일 홍천 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문순 지사, 김동일 도의장, 민병희 도교육감, 노승락 홍천군수, 신동천 홍천군의장, 변금옥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여한다.

24일 홍천 전통시장서 캠페인 각급 기관·단체장 대거 참여 문화공연·각종 사은품 마련

이날 오전 11시40분 홍천 꽃피공원 앞에서 문화공연과 더불어 강원상품권 쓰기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가두캠페인에서는 전단지 대신 꽃과 한우육포를 나눠준다. 또 캠페인에 이어 전통시장 내 식당을 이용하면서 ‘각자 내기’ 오찬의 시간도 마련된다. 식사 후에는 전통

시장 장보기 운동이 이어지고 이렇게 구입한 물품을 노인·장애인 등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강원상품권을 올 상반기에만 25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도내 각 전통시장과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승락 군수는 “강원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고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

올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3조 3770억원

도·건설협, 24일 홍천서 설명회

올해 강원도내에서 발주될 공사 물량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와 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도와 도육청, 시군, 원주국토청, 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사업 규모는 3조377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73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는

건설공사 3조2832억원, 설계용역 1311억원 등 총 3637건에 3조4143억원의 공사가 발주됐다. 도는 6월까지 연내 발주 계획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와도 건설협회는 오는 24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2017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고 올해 발주 계획을 설명한다. 안은복